

## 무용전공자를 위한 고등교육 진로개입 실태분석\*

김은혜 · 남진희 · 박재근\*\* 상명대학교

대학 무용전공자의 다각화된 진로개발을 위해서는 직업지도, 진로교육, 진로상담을 포함하는 진로개입(Career Intervention)을 교육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 실태를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근 무용전공 졸업생들의 취업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무용학과 내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무용학과 또는 무용 전공이 개설된 4년제 대학 36개교를 연구의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이 중 30개교(83%)를 대상으로 진로개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은 외형적으로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체계적인 진로개입을 위한 접근 방안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무용전공자를 위한 직업지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정보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교육은 실천적인 형태로 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에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기여를 하기 보다는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무용 전공자를 위한 진로상담은 직업지도와 진로교육에 비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는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 발전 방안으로 무용직업군 직업표준체계 및 진로흥미검사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콘텐츠와 진로상담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절실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무용전공자, 진로개입, 직업지도, 진로교육, 진로상담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2015년 12월 진로교육의 기본방향과 지원체계를 확립한 '진로교육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으며, 이후 교육부에서 2016년 5월 '진로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6). 정부는 이러한 진로교육과정 기반 조성을 통해 학생에게 충분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는 진학과 취업을 통해 삶의 행복과 성취감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법제처, 2015.6.22. 제정; 김정희, 정일환, 정진철, 주동범, 이현민, 2016). 진로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대학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희망직업을 탐색하고 선정할 수 있는 학생들의 진로개입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 및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이러한 진로개입을 정규교과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고등교육단계는 개인의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세계로의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로서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로 보고되고 있다(김효정, 김봉환, 2011; 박가열, 2009; 정철영,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8058996)

\*\* 교신저자 : [president@koreaballet.com](mailto:president@koreaballet.com)

1998).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초·중등 교육 단계의 과도한 입시 경쟁 속에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 진로 등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진로준비 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개입의 정도도 매우 낮다고 지적된 바 있다(김정희 외 4인, 2016). 진로교육법이 제정된 이후로 고등교육단계의 일반학생을 위한 진로개입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대학 무용전공자들의 진로와 취업 또한 체계적인 진로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김지영, 임수진, 김형남, 2016; 한국예술경영연구소, 2017). 대학 무용전공자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예: 진로장벽, 진로탐색, 진로결정수준 등)들과 결과 변인을 검증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김민지, 전순희, 2016; 양혜주, 여인성, 원도연, 2013; 이연수, 정한결, 2012; 이주연, 2011; 최은용, 2016). 이와 더불어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문선화, 이태구, 이한주, 2016; 박선희, 조남용, 2009; 신민혜, 2016; 2017).

그러나 대학 무용전공자들 또한 진로준비가 낮은 수준이며, 초·중등 단계의 과도한 입시경쟁 속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주연, 2011). 특히 대학 무용전공자들을 위한 진로개입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 무용전공자들이 많은 시간을 실기 연습과 공연에 할애하며 공연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김보미, 2017), 대학을 통한 진로개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되어진 바 있다(곽병선, 2013). 대학 무용전공자들을 위한 진로개입의 부재는 대학 무용전공자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자아실현 및 성취와 경제활동을 통한 성인으로서의 입지를 고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의 교육혁신이 교육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의 체제개편과 구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한국교육개발원, 2014), 무용학과는 낮은 취업률과 산업수요와 미스매치라는 평가를 받으며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김지영, 박인실, 임수진, 2017; 김지영, 임수진, 김형남, 2016).

이러한 상황에 대학 무용전공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개입이 부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제는 전문무용예술인과 무용교육자 양성에 주력하는 진로개입에서 탈피하여 대학 무용전공자들이 다양한 직업세계를 경험하고 진출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개입 방안이 고민하고 개발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대학 무용전공자의 진로개입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무용일자리 직무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안정화의 대안으로 직업지도, 진로교육, 진로상담의 관점에서 AHP분석을 통해 무용진로개입의 체계적 접근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존재한다(김지영, 임수진, 김형남, 2016). 그러나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는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으나 현재 무용학과에서 무용전공자들을 위한 진로개입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 무용학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개입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대학 무용전공자의 진로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대학 무용전공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무용진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대학 무용전공자들을 위한 진로개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즉,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직업지도,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로개입의 방식, 진로개입의 내용 등에 대한 실증적 조사 자료를 통해 대학 무용전공자의 진로개입의 필요성 제시와 체계적인 진로개입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의 이해

### 1) 직업지도

직업지도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특성을 탐색하여,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에 자신을 매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홀랜드 직업흥미적성 검사와 피드백이 해당된다. Holland(1997)의 진로선택이론은 진로상담연구 분야에서 오랫동안 큰 영향을 미친 이론으로, 개인의 성격을 6가지 유형(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각 개인은 어느 한 유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유형이 성격적 특징과 행동은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보고되고 있다(황매향, 2004). 6가지 성격유형은 다음과 같은 4개의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황매향, 2004; Holland, 1997).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섯 가지 성격 유형 중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여섯 가지 성격 유형에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다. 셋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고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 넷째, 개인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며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직업환경에 대한 지식은 진로선택, 직업변경, 직업적 성취감 등에 관해서 중요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황매향, 2004). Holland(1997)의 진로선택이론은 4개의 기본 가정 이외에 5개의 주요 개념(일관성, 변별성, 정체성, 일치성, 계층성)을 가정하고 있다. Holland(1997)는 성격 유형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찾는 것이 진로결정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진로선택이론에 근거한 직업지도를 위해서는 Holland(1997)의 성격유형 분류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성격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계층분석을 통하여 무용진로개입의 체계적인 방안과 핵심 요인을 도출한 김지영, 임수진, 김형남(2016)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직업지도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특성을 탐색하여, 자신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사하는 직업에 자신을 매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직업지도에 대한 세부 요인으로 '다양한 무용직업 세계의 이해', '자기이해와 정체성의 강화', '진로 적성 및 흥미탐색', '개인특성에 기초한 무용직업의 매칭'을 제시하였다.

### 2) 진로교육

진로교육은 개인적 발달을 주관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내담자들에게 자신의 삶의 단계에서 적절한 태도와 신념, 추가된 커리어에 대한 주요 역량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단 또는 개인에게 교육적 방법을 적용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Super(1990)의 진로발달이론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다. 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진로발달단계는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고등교육단계인 대학생의 시기는 탐색기이다. 탐색기는 전생애적 관점에서 볼 때 장래 직업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며 자신의 자아개념을 확립하고, 개인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이다(김충기, 황인호, 장성화, 김순자, 모종수, 2016). 대학 무용전공자에게 구체적인 진로설계와 진로목표를 설정을 제공하는 진로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김지영, 임수진, 김형남, 2016). 따라서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다양화와 세부화를 위한 진로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신민혜, 2016),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문선화, 이태구, 이한주, 2016). 또한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교육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 '구체적인 진로설계와 진로목표 설정',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 로드맵 구성', '직무중심의 역량 개발', '진로장벽에 대한 이성적인 대처 태도 함양' 등 네 가지 요소가 제안되었다(김지영, 임수진, 김형남, 2016).

### 3) 진로상담

진로상담은 자신의 삶에서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진로개입을 말한다. 미래 지능정보사회는 안정된 조직 내에서 진로를 발전시키기 보다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관리하도록 요구된다. 개인이 스스로의 진로를 책임지고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서의 진로상담은 진로구성이론(Savickas, 2001, 2005)으로 설명될 수 있다(김봉환, 김소연, 정희숙, 2016). Savickas(2001)의 진로구성이론은 기존의 진로발달이론들의 연관성을 통합하여, 개인의 특성들과 발달 과제, 그리고 삶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직업행동의 구성주의 이론으로 발전되었다(김봉환, 김소연, 정희숙, 2016). 진로구성이론에 따르면, 진로상담은 일과 관계를 통한 자기-구성에 초점에 맞춰져 있으며, 심리학적 방법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세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직업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봉환, 김소연, 정희숙, 2016). 진로구성이론에 따른 진로상담의 주요개념은 세 가지이다. 첫째, 개인이 삶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조직하고 통합하는 자기-참조적 과정인 전기성(Biographicity)이다. 둘째, 개인이 필요로 하거나 열망하는 것으로 움직이게 하는 자극인 캐릭터아크(Character Arc)이다. 셋째, 단편적이고 사소한 삶의 스토리를 거대한 스토리로 통합하여 구성하는 매크로내러티브(Macro Narrative)이다. 진로구성이론을 토대로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체계적인 진로개입 접근 방안을 제시한 김지영, 임수진, 김형남(2016)은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에서 진로상담은 매크로 내러티브 상담을 통한 삶과 연계한 내적 문제 지도와 무용직업의 흐름 및 진로행동을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상담의 요소로 ‘삶과 연계한 내적 문제 지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 ‘직업적 플롯 확장과 진로행동으로의 전환’, ‘진로개입 성과에 대한 피드백 제시’를 제안하였다(김지영, 임수진, 김형남, 2016).

## II. 연구방법

### 1. 문헌 분석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 실태를 분석하기에 앞서, 대학 무용전공자의 진로 경로를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대학 무용전공자의 졸업 현황 및 취업률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를 통해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 학교 및 학과 기본정보’와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자료’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개인장작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를 취업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4년제 무용학과(무용전공을 포함하고 있는 학부)의 졸업생의 수, 취업자의 수, 취업률, 진학률을 포함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 4년제 대학교 대학과정에서 예체능계열 중 무용학과를 분석하였으며, 실용무용전공학과는 제외하였다. 대학 무용학과의 진로·취업 분야 커리큘럼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알리미에 명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4년제 대학 36개의 무용학과 커리큘럼을 분석하였다. 무용학과 커리큘럼 내에서 진로·취업 분야 커리큘럼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예술경영연구소(2017)에서 문화예술교육과정 현황 및 진로설계지원 연구에서 진로·취업 분야 키워드로 제시한 ‘취업’, ‘진로’, ‘창업’, ‘현장실습’, ‘인턴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의 경우 진로·취업 분야 교과목으로 분류하였다.

2. 설문 조사

1) 연구대상자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 실태 분석을 위하여 대학알리미(2018년 기준)에 명시된 무용학과(무용전공을 포함하고 있는 학부)가 있는 36개 대학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설문에 참여한 30개 대학(83%)의 자료를 진로개입 실태분석에 사용하였다<표 1>. 각 학교를 대표한 설문응답자(행정직 또는 교강사)의 설문 내용을 분석에 반영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4개교, 경남지역 2개교, 경북지역 2개교, 대구지역 1개교, 대전지역 1개교, 부산지역 2개교, 서울지역 15개교, 전북지역 1개교, 충남지역 2개교가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지역

변인	범주	빈도	비율(%)
지역	경기	4	13.3
	경남	2	6.6
	경북	2	6.6
	대구	1	3.3
	대전	1	3.3
	부산	2	6.6
	서울	15	50
	전북	1	3.3
	충남	2	6.6
	계		30

2) 설문 문항

설문의 내용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진로개입(직업지도, 진로교육, 진로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었다(예: 귀 학과에서는 학과 차원에서 재학생을 위한 직업지도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진로개입 여부를 묻는 문항은 총 3문항으로, 응답자는 진로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는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응답하였다. 진로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김지영, 임수진, 김형남(2016)의 연구에서 제시한 핵심요인을 선택하는 내용을 설문에 포함하였다(직업지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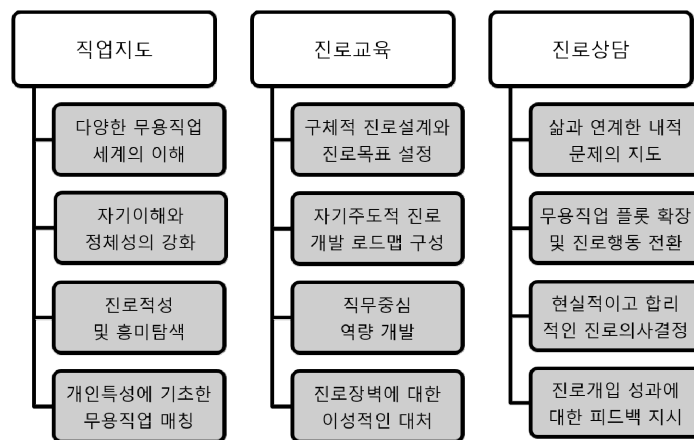


그림 1. 김지영, 임수진, 김형남(2016)의 무용진로개입의 체계를 근거로 진로개입 설문 문항의 구성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세요). 진로개입의 내용과 방식을 묻는 문항은 총 3문항으로 설문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은 <그림 1>과 같다.

### 3)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대학 무용전공자들을 위한 진로개입 실태 조사를 위해 대학 알리미에 명시된 무용학과(무용전공을 포함하고 있는 학부)가 있는 36개의 대학을 표본으로 2018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대학 무용전공자들의 진로개입 실태분석을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방식은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진행되었다. 첫째, 대학 알리미를 통해 현재 개설되어 있는 무용학과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진로개입 실태에 대한 설문을 받기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와 자료 수집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구하였다. 셋째, 온라인 설문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설문문항을 제작한 인터넷 URL을 문자 메시지로 배포하여 컴퓨터 또는 휴대폰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는 자기기입방식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은 EXCEL 프로그램을 통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학 무용전공 졸업자의 취업 및 진학 현황 분석 결과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 실태 현황을 분석하기에 앞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대학 무용전공자의 취업 및 진학 현황을 조사하였다(표 2). 대학 무용전공 졸업자는 2014년 1,013명, 2015년 1,084명, 2016년 1,005명이 배출되었다. 이 중 취업자는 2014년 467명(56.8%), 2015년 588명(62.7%), 2016년 542명(62.0%)으로 나타났다. 대학 무용전공자의 진학비율은 2014년 145명(12.6%), 2015년 133명(9.3%), 2016년 126명(12.6%)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 대학 무용전공 졸업자의 취업 및 진학 현황

연도	졸업자 수 (명)	취업자 수 (명)	취업률 (%)	진학자 수(명)	진학률 (%)
2014	1,013	467	56.8	145	12.6
2015	1,084	588	62.7	133	9.3
2016	1,005	542	62.0	126	11.2

대학 무용전공자의 취업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취업형태 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2). 프리랜서 취업자는 2014년 216명(46%), 2015년 238명(40%), 2016년 234명(43.1%)으로 나타나 프리랜서 형태의 취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교외취업자는 2014년 192명(41%), 235명(40%), 235명(40%)으로 나타났다. 1인 창업자의 경우, 2014년 12명(3%), 2015년 24명(4%), 2016년 23명(4%)로 무용전공 취업현황에서는 아직까지 1인 창업이 가장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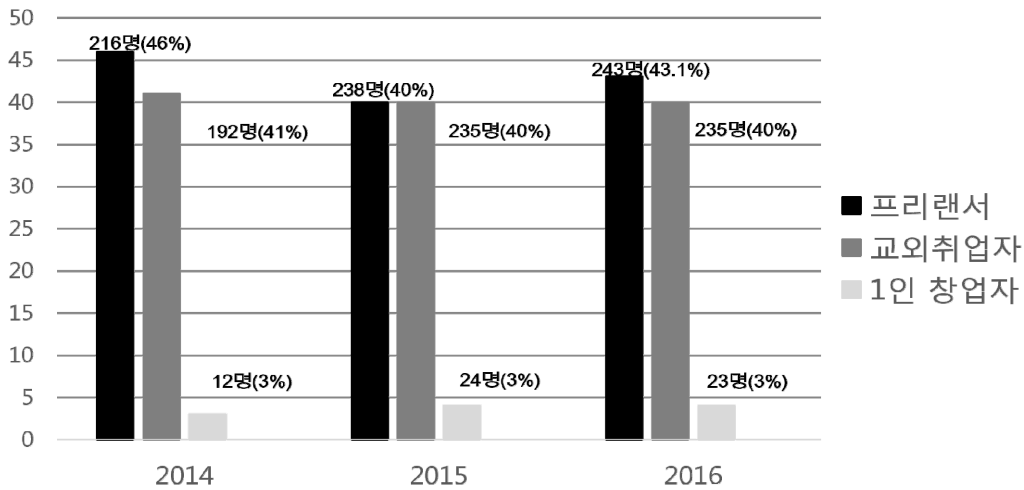


그림 2. 2014-2016 대학 무용전공자 형태별 취업 현황

## 2. 대학 무용학과 진로개입 관련 커리큘럼 분석 결과

36개의 무용학과 커리큘럼을 분석한 결과,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이 존재하는 학과는 15곳,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이 존재하지 않는 학과는 21곳으로 나타났다.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이 개설된 학과를 중심으로 개설된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의 평균은 1.56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36개 무용학과의 전체 교과목수는 2403개이고, 진로·취업 분야 교과목은 전체의 2.37%인 57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설된 진로 무용학과 내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을 분석하기 위하여 진로교과목 유형을 '진로중심', '취·창업중심', '인턴십 중심', '현장실습 중심', '기타' 로 분류하였다(표 3). 진로중심은 진로에 초점이 맞춰진 교과로 '진로' 단어가 포함된 교과목이거나 그 내용이 진로와 관련된 내용으로 '진로지도', '무용진로특강'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창업 중심은 '취업' 또는 '창업' 단어가 포함된 교과목이거나 그 내용이 취업이나 창업이 관련된 내용인 교과목으로 '취·창업과 자기계발', '취·창업 전공세미나', '취·창업 지도자 워크샵', '공연무용취업특강'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십 중심과 현장 실습 중심은 인턴십 또는 현장실습에 초점이 맞춰진 교과목으로 실제 취업 지원을 위한 과목이 이에 해당된다. '무용학인턴십', '산업체현장실습', '무용창업현장실습' 등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무용학과(무용전공을 포함하고 있는 학부) 내 진로교과목 분류

구분	교과목명
진로 중심	진로지도, 무용진로특강, 취·창업을 위한 진로탐색
취·창업 중심	취·창업과 자기계발, 취·창업 전공세미나, 취·창업 지도자 워크샵, 공연무용취업특강, 전공과 창업, 전공과 취업, 공연예술현장의 이해와 취업, 문화예술 교육현장의 이해와 취업, 취·창업을 위한 역량개발, 취업설계
인턴십 중심	무용학인턴십, 무용인턴십, 인턴십과정
현장실습 중심	산업체현장실습, 무용현장실습, 무용창업현장실습,
기타	사제동행세미나, 미래설계상담, 대학생활설계, 커리어개발

3.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 현황

1) 직업지도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직업지도는 현황은 <표 4>과 같이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문에 응답한 30개 대학 중 24개의 대학(80%)이 직업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응답하였고, 6개 대학(20%)가 직업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응답하였다. 직업지도가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사례 중 12개의 대학이 정규교과과정으로 나머지 12개의 대학이 비교과과정으로 직업지도가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직업지도 방식의 구체성과 전문적 체계에 대한 조사 결과, 다양한 무용직업 세계의 이해와 진로 적성 및 흥미탐색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재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흥미적성검사지나 무용직업분류체계는 부재한 상태이므로 실질적인 직업지도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직업지도 현황

구분		사례수 (명)	백분율(%)
직업지도	유	24	80
	무	6	20
직업지도 방식	정규교과과정	12	50
	비교과과정	12	50
	응답없음	6	-
계		30	100

2) 진로교육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교육 현황은 <표 5>과 같이 조사되었다.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교육은 설문에 응답한 30개 대학 중 20개의 대학(66.7%)에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응답하였고, 10개 대학(33.3%)의 대학이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응답하였다. 진로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사례 중 12개 대학은 정규교과과정 방식으로, 나머지 8개 대학은 비교과과정 방식으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진로교육의 형태와 방식을 조사한 결과 무용전공자가 진로설계와 진로목표만 설정하는 수준에서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응답하였다.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 로드맵 구성과 진로장벽에 대한 대처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과와 비교과의 연계선상에서의 진로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표 5.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교육 현황

구분		사례수 (명)	백분율(%)
진로교육	유	20	66.7
	무	10	33.3
진로교육 현황	정규교과과정	12	60
	비교과과정	8	40
	응답없음	0	-
계		30	100

3) 진로상담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상담 현황은 <표 6>과 같이 조사되었다.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상담은 설문에 참여한 30개 대학(100%) 모두에서 진로상담을 시행하고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진로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 중 10개 대학이 정규교과과정으로 19개 대학이 비교과과정으로 진로상담이 진행된다고 응답하였다. 대체적으로 무용전공자를 위한 상담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무용전공자로서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한 지도로 이루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적으로 무용전공자의 진로 상담은 지도교수의 개인 멘토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도교수의 멘토링은 무용전공자의 자기효능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진로준비행동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양혜주, 여인성, 원도연, 2013), 지도 교수의 멘토링만으로는 충분한 진로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지도 교수의 진로지도 역량이나 상담만으로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용분야의 다양한 전문 인력의 멘토링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진로상담가의 심층적인 진로상담 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무용전공자로서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취업진출 분야가 확보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진로대안을 확장하고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과 진로행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진로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6.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상담 현황

구분		사례수 (명)	백분율(%)
진로교육	유	30	66.7
	무	0	0
진로교육 현황	정규교과과정	10	33.3
	비교과과정	19	66.3
	응답없음	1	-
계		30	100

## IV.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진출 및 취업의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개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차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 무용공자의 진로개입 결과의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취업률과 무용학과의 진로·취업 관련 커리큘럼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진로개입의 실태현황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직업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무용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직업지도는 진로개입의 다른 요소인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에 비해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으로 확인되었다. 학과 내에서 직업지도로서 진로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로 다양한 직업 세계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직업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기이해와 정체성의 강화와 개인특성에 기초한 무용직업의 매칭에 대한 직업지도는 상대적으로 적게 지도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지영, 임수진, 김형남(2016)이 제시한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무용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줄 수 있는 직업지도가 중요하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학 무용전공자가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무용직업의 매칭에 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용 졸업생의 취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프리랜서 형태의 취업자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어떤 특정 조직에 명확하게 소속되지 않는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특성 상 안정된 고용이 어렵고, 직무환경 역시 불안정하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따라서 직업세계에 대한 진로 준비가 미비하고 직업 선택에 있어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대학 무용전공자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희망하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재학 중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춰 직업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진로흥미검사지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후 직업분류체계와 같은 무용분야의 직업을 유형화 하여 직업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직업정보 제공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일자리 정보제공이나 알선이 아니라 졸업 후 직업경로를 최대한 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첫 번째 일자리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직업지도는 당장의 취업을 제고가 목표가 아니라 졸업 후 학생들이 직업진로를 최대한 넓게 확대하고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학 무용전공자들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진로교육은 비정규교과과정보다 정규교과과정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구체적인 진로설계와 진로목표 설정에 초점이 맞춰져 운영되고 있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36개의 무용학과 중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이 존재하지 않는 학과는 21곳으로 나타났으며, 무용학과의 교과목을 분석한 결과 총 2403개 교과목 중 57개만이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의 구성은 매우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진로설계와 진로목표 설정에 관련한 내용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무용학과에 개설된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교과목의 구성은 '취·창업'에 초점이 맞춰져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즉, 무용학과의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취업·창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이 취업 및 창업으로까지 이어져야 함은 분명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진로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민혜(2016)는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효과적인 진로교육 운영방안이 중요함을 지적하며, 저학년과 고학년을 위한 진로교과목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또한 김지영, 임수진, 김형남(2016)은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다각화된 진로개발로드맵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수준을 점차적으로 높여나가는 과정(기초, 발전, 심화, 체험)으로 진로교육을 제시하였다.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고 탐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진미석, 정혜령, 이수영, 2010). 따라서 무용학과에서는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경력을 디자인 할 수 있도록 무용 및 무용 인접 분야의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을 개편하여 학년별 진로교육과정을 구축하고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체계적인 진로 교육이 운영되도록 할 것이다.

셋째, 진로상담은 직업지도와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모든 무용학과에서 진로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교과과정 형태에 비해 비교과과정의 형태로 진로상담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 상담은 주로 교수와의 면담 형태로 운영이 되며 진로 선택을 위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내용이 다루어진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로상담은 교수의 진로지도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효과적인 진로상담을 위한 심층적인 상담기술과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학생들은 진로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진로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

한 진로상담은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뿐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개발을 위한 직업지도의 관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김지영, 임수진, 김형남, 2016). 즉 무용전공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진로대안을 확장하고 진로행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진로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로상담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일반적인 진로관련정보를 전달받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삶 전체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전문적인 진로상담을 통해 대학 무용전공자가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의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증적 조사를 통해 대학 무용전공자들을 위한 진로개입의 현 상황을 파악하여 대학 무용전공자들을 위한 진로개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무용전공자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로 결정요인과 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결과 요인들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거나 진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행연구들과 차별을 두어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 실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진로개입 실태 분석을 통하여 무용전공자에게 실질적으로 진로 정보를 제시하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진로개입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인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취업통계자료를 통하여 무용학과 졸업생의 취업률을 조사하였다. 무용학과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을 분석하기 위하여 36개 무용학과의 커리큘럼을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무용학과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개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에는 36개 무용학과(교·강사 및 행정담당직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30개 무용학과의 자료를 취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체계적으로 진로개입이 이루어지는 방안과 후속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학과 졸업자와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프리랜서 형태의 취업자의 취업률이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직업지도를 실시해야 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직업지도에 대한 설문 결과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직업지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정보나 프로그램은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연구로 실질적으로 무용전공자의 흥미와 특성에 부합하여 직업지도를 도울 수 있는 진로흥미검사지 (예: Holland의 진로 흥미 검사지, MBTI 성격유형 검사지)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무용학과의 커리큘럼을 분석한 결과, 취업, 진로, 창업, 인턴십 등 진로교육을 위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교육은 취업과 창업 위주의 단편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 설계를 위한 기초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각 학년별로 필요한 진로교육의 요구를 확인하여 체계적인 진로교육 콘텐츠가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 상담은 직업지도와 진로교육에 비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진로 상담은 지도교수와 면담만으로는 제약이 있으며, 무용전공자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기술과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무용전공자를 진로 상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진로상담을 위하여 진로지표 또는 진로상담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단계의 진로개입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무용전공자의 진로를 탐색하고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무용전공자의 진로개입을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는 부족한 시점이다. 또한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은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지속적인 진로개입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개입 콘텐츠는 부재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무용전공자를 위한 고등교육 진로개입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통하여 취업률을 분석하고, 무용학과와 커리큘럼을 통하여 진로 관련 교과목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학교를 대표하는 설문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대학 무용전공자의 경험하는 진로개입의 실태를 대표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조사된 36개 무용학과(무용전공을 포함하고 있는 학부)에 재학 중인 대학 무용전공자를 대상으로 진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무용전공자를 위한 체계적인 진로개입을 위한 보다 폭 넓은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무용전공자의 진로지도에 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전공자들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대학 무용전공자들이 진로개입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 질적으로 점검하여 보다 체계적인 진로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병선 (2013). 꿈과 끼를 살려주는 신정부의 진로교육 방향과 과제. *The HRD Review*, 16(2), 2-5.
- 교육부 (2016). 자유학기제 안착과 확산을 위한 제 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
- 김민지, 전순희 (2016). 무용전공 대학생의 진로개발 역량요인 탐색. 제 8회 한국무용연구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
- 김보미 (2017).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관점으로 바라본 대학 무용교육전문인 양성교육과정 인식 탐색. *한국예술교육학회*, 15(1), 1-18.
- 김봉환, 김소연, 정희숙 (2016). **Career Counseling**. 서울: 박영story.
- 김정희, 정일환, 정진철, 주동범, 이현민 (2016). 4년제 대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진로교육전담 기구 현황분석. *진로교육연구*, 29(4), 1-28.
- 김지영, 임수진, 김형남 (2016). AHP 분석을 활용한 무용진로개입의 체계적 접근 방안. *한국체육학회지*, 55(6), 661-676.
- 김지영, 박인실, 임수진 (2017).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발역량 검사지 개발 및 타당화 검증 : 사회인지진로이론(SCCT)의 관점. *한국체육학회지*, 56(2), 461-475.
- 김충기, 황인호, 장성화, 김순자, 모종수 (2016). **진로상담과 진로교육**. 서울: 동문사.
- 김효정, 김봉환 (2011). 청년구직자들이 진로결정과정에서 겪는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사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85-810.
-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 문선화, 이태구, 이한주 (2016). 무용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진로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발 : 새로운 취업경로인 초등돌봄전담사 측면에서. *한국무용과학회지*, 33(3), 27-41.
- 박가열 (2009). 대학생 진로개발 역량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진로교육연구*, 22(2), 181-198.
- 박선희, 조남용 (2009). 진로 교육 측면에서 살펴본 무용관련학과의 교육과정 현황과 대안적 방향 탐색. *한국무용과학회*, 19, 1-11.
- 신민혜 (2016). 진로다양화 및 세분화를 위한 무용학과 진로교육 교과과정 및 운영 방안. *무용예술학연구*, 61, 13-27.
- 신민혜 (2017). 대학 무용학과의 존립을 위한 선별-교육-진로 방향성 모색. *무용예술학연구*, 67-85.
- 양혜주, 여인성, 원도연 (2013). 무용학과 대학생의 멘토링 관계가 회복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2(5), 1089-1102.

- 이주연 (2011). 무용전공대학생들의 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대한무용학회* **67**, 216-230.
- 이연수, 정한결 (2012). 무용전공 대학생의 예술경영 수업만족과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26**, 17-34.
- 정철영. (1998). 농학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학계 대학생에 대한 진로교육 및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30**(4), 1-23.
- 진미석, 정혜령, 이수영. (2010). 국내 4년제 대학의 진로개발지원 현황과 과제. *진로교육연구*, **23**(1), 135-152.
- 최은용 (2016). 대학 무용전공자의 학과몰입 및 전공몰입이 진로장벽 및 진로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 **25**(2), 721-732.
- 한국교육개발원 (2014).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향 정립을 위한 대학평가 운영 실태 분석.
- 한국교육개발원 (2014). 예술계열 취업통계조사 개선방안 연구.
- 한국예술경영연구소 (2017). 문화예술대학 교육과정 현황 및 진로설계 연구 지원.
- 한석수 (2015). 대학의 구조개혁 정책 추진방향, 교육정책포럼.
- 황대향. (2004). 대학생의 진로선택을 중심으로 한 Holland 이론의 문화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53-666.
- Holland, J. L. (1997).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avickas, M. L. (2001). Toward a comprehensive theory of career development: Dispositions, concerns, and narratives. *Contemporary models in vocational psychology: A volume in honor of Samuel H. Osipow*, 295-320.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1**, 42-70.

ABSTRACT

---

**An Analysis on the Status of Dance Career Intervention for Major Students in Higher Education**Kim, Eun Hye, Nam, Jin Hee, Park, Jae Keun *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status of career intervention for university dance majors and present a direction for development. The employment rate of dance major graduates was analyzed through literature analysi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iculum subjects in dance departments related to career path and employment were analyzed. In addition, a survey on career intervention was conducted with administrative professionals working in university dance departments. Findings drawn from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career intervention for dance majors are as follows: Career intervention for dance majors appears to have expanded, but results showed that approaches to systematic career intervention are still lacking. First, there were not enough information or programs that fully support Vocational guidance for dance majors. Next, career education for dance majors were being carried out merely as formality. Finally, career counseling for dance majors were being conducted at a better level compared to career guidance and career educ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career intervention development measures for dance majors.

**Key words** : Dance Majors, Dance Career Intervention, Vocational Guide, Career Education, Career Counseling

---

논문투고일: 2018. 05. 31  
논문심사일: 2018. 06. 01  
심사완료일: 2018. 07. 18